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

차경미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지지기반 상실과 함께 세계 그 어떤 지역보다도 탈 신자유주의 통합구상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어 왔다. 좌파정권의 확산과 함께 동맹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역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대응해 나아갔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지적 단계에서 자치를 확장하는 탈중앙집권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원주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안데스 지역의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헌법 개정 및 시도를 통해 자치와 협치에 입각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은 수직적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국경을 넘는 지역 간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경지역 협력 강화정책이 구상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안데스 지역 국가의 탈중앙집권화는 원주민의 경제와 사회 조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아래로부터의 발전을 통한 빈부격차해소, 평등한 시민 참여제공, 국가 기구의 축소 및 가장 효율적인 공공업무 처리를 골자로 지방분권화는 추진되었다. 특히 페루와 볼리비아 정부는 원주민 전통문화유지 발전을 통한 공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주민의 정치와 문화적 요



아이마라 원주민 분포지도(출처: <http://www.ilcanet.org/ciberaymara>)

구를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칠레정부는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푸트레(Putre), 콜차네(Colchane)와 카리키마(Cariquima)같은 주요 접경도시로 유입되는 아이마라(Aymara) 원주민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영화(Municipalización)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아이마라 원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지역 지방정부는 국경지역을 하나의 자치공간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동맹을 논의하였다.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고 있는 안데스산맥 지역에서 케추아(Quechua)족과 아이마라(Aymara)족은 가장 대표적인 원주민 종족집단을 구성한다. 특히 해발 3,600미터에 위치한 티티카카(Titicaca)호수를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고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은 아이마라 원주민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스페인 정복이전



알티플라노에 거주하는 아이마라 원주민(출처: panoramio.com)

알티플라노(Altiplano)를 거점으로 고대문명을 형성하며 잉카제국과 경쟁했다. 이들은 현재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남쪽,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북서쪽 그리고 칠레의 중앙지역까지 연방을 건설하였다. 오늘날에도 아이마라 원주민은 이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볼리비아를 거점으로 아르헨티나 일부 영토까지 확장되었던 아이마라 원주민의 영토는 근대국가 형성의 정치적 산물인 국경선을 통해 분리되었다. 독립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엘리트의 경쟁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다양한 국가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전개된 국가 간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은 국경선 형성 혹은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아이마라 원주민은 서로 다른 국적아래 양분되었다. 특히 1879년 4월 아타카마(Atacama) 사막 초석지대를 둘러싸고 발발한 태평양 전쟁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은 페루, 볼리비아, 칠레로 분리되었다.

소수 종족집단 형성 범주 논의에 있어서 아이마라 원주민은 국가영역의 팽창에 따른 국경의 변화로 인해 형성된 소수 종족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식민세력의 세력균형과 행정적 편의를 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의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국경변화(출처: <http://geology.com/world/>)

로 인하여 동일한 종족집단이 두 개 이상의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주민은 서로 다른 국적 아래 협조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종족의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 종족집단 중에서도 아이마라 원주민은 국가의 소속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 속에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다. 국경선 형성으로 영토가 분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코마르카(Ancomarka), 페루아노(Peruano), 차라냐(Charaña), 볼리비아노(Boliviano), 비스비리(Visviri) 그리고 칠레노(Chileno)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동일한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여전히 동족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초석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 영토 타라파카(Tarapacá)를 차지했다. 볼리비아의 리토랄(Litoral)과 안토파가스타 지역도 칠레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후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의 국경선은 분쟁과 갈등을 통해 변경되고 수정되었다. 삼국의 국경선은 20세기 접어들어 칠레 군사정권의 주도로 확정되었다.

국경선 확정과 수정 그리고 변경은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국경선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민의 국적도 동반 수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원주민의 갈등은 유발되었다. 아이



아이유스 공동체 (출처: ayllu.org.pe)

마라 원주민은 아이유(ayllu) 공동체에 기초한 공동 토지 운영방식을 통해 동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유지하는 한편, 국경선 변경과 수정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다.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접경지역은 아이마라 원주민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발전하였다.

아이마라 원주민 영토의 공간적 분리는 원주민의 삶과 규범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원주민은 동일한 언어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Pachamama)에 대한 숭배를 통해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삼국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초국가 공동체 구상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말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페루-볼리비아-칠레 삼국 지방정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정치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접경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

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하나의 종족통합의 공간형성이 시도되었다. 전통문화의 가치 아래 원주민 자치 공간은 지역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다양한 공동체의 동맹을 통해 모색되었다. 삼국 접경지역 원주민은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편입 확대에 의한 세계화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한 자치 공간 확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삼국 접경지역 지방정부는 국제기구 및 NGO의 지원을 받아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며 원주민 통합을 주도하였다. 미주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지역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원주민 공동체 통합은 전개되었다. 원주민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전략적 동맹은 ‘아래로부터의 통합’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민간 정권의 등장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원주민의 정치참여는 확대되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전통에 기반 한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도시화와 전문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을 통제하였다. 또한 원주민 자치단체는 국제협력 기구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삼국 접경지역은 아이마라 원주민의 공동 영토라는 지역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통한 권위적인 중앙집권 권력구조에 대응하는 실험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1년 안데스 지역 박람회(FERAN) 개최를 시작으로 삼국 지방정부 대표들은 칠레 푸트레(Pture)에서 회합하여 접경지역 56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원주민 공동체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초 국가공동체 형성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페루의 타크나(Tácna), 푸노(Puno), 볼리비아의 라파스, 오우로(Ouro), 포토시(Potosí) 그리고 칠레의 아리카(Arica)와, 파리나코타(Parinacota) 및 타라파카(Tarapacá)주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전개되었다. 칠레정부는 공공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취지아래

전략적 동맹에 적극 동참하였다. 칠레 시정부는 지방도시협의회(la Asociación de Municipios Rurales)를 조직하여 통합의 박차를 가했고, 볼리비아의 라파스와 오우로 시협의회 그리고 페루의 타크나 지방시협의회는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주도하였다.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원주민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영토적 논리에 따라 공용정책을 포함하는 지역경제 발전, 환경, 교육 그리고 지방정부 통상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와 언어정책, 교육과 보건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삼국이 공동으로 국제협력을 모색한 사례로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라는 국경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2006년 볼리비아 서쪽 삼국 접경지역 25개 중소도시, 페루 남부 14개 도시 그리고 칠레 아리카주 중소도시를 초국가적 통합을 위한 공간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접경지역 51개의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는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및 다양한 NGO 지원에 힘입어 통합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시도된 아이마라 원주민의 통합정책은 원주민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정책적 수단에 불과했다. 원주민과 공동체는 시장경제 편입과정에서 일정부분 물질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 원주민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아래 지방정부는 공공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민에게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삼국 접경지역 56개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국경 없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지방부처는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원주민 종족의 정체성은 자신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은 원주민의 종족성과 지역 구조를 약화시켰으며, 오히려 지역 엘리트의 권력

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위한 원주민 조직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었다. 원주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한 초국적 통합은 결코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주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국경지역 종족 분열과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Tapia, Jorge. 2003. "Descentralización, Diplomacia y Paradiplomacia en la Época de la Globalización", *Estudios Transfronterizos*, Vol. I, no. 1. Iquique de Chile. Universidad Arturo Prat.
- Ovando Santana, Cristian. 2009. *Alianza Estratégica Ayamaras sin Fronteras como Expresión de Diplomacia no Tradicional Chile-Boliviana en el Siglo XXI*. Universidad Central de Chile.
- González Miranda, Sergio. 2008. "De "Aymaras en la frontera" a "Aymaras sin fronteras". Los gobiernos locales de la triple-frontera andina (Perú, Bolivia y Chile) y la globalización". *Diálogo Andino-Revista de Historia, Geografía y Cultura Andina*. Universidad de Tarapacá de Chile.
- Rhi-Saushi, José Luis. 2008.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 los procesos de descentralización y regionalización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Revista OLDLES*, vol. I. No 3.
- Graña F. 2001. "Identidades fronterizas: contexto y definición". *Taller de Investigaciones Culturales(TINCU)*. Arican. Chile.

차경미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